

2024년 9월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유건영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4년 9월 10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Cluster Naval과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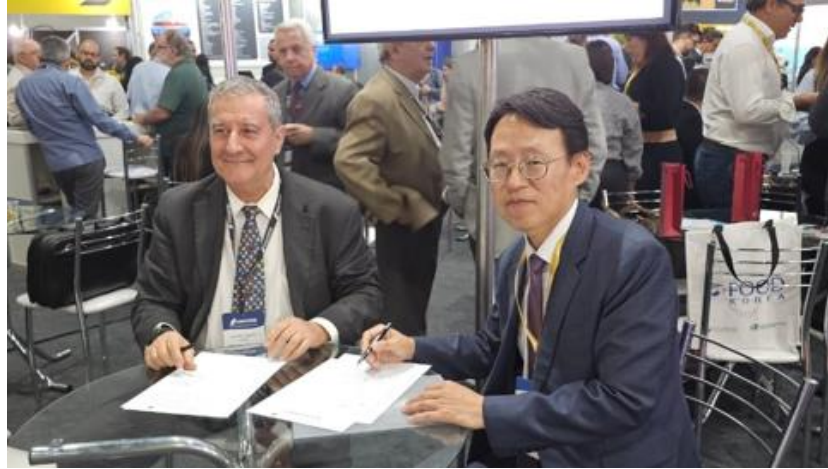
법률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안내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Cluster Naval 방문 및 MOU 체결 (8/21)



유건영 코참 회장은 8월 21일(수), 오후 3시에 해양 클러스터가 개최한 Navalshore 행사장을 방문하여, Walter Lucas da Silva 해양 클러스터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양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최태훈 코참 고문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서윤호 브라질 거점기지 위원, 이은철 미국 지사 담당자가 동행하였다.

코참과 해양 클러스터 간에 체결된 MOU는 양 단체가 협력하여 해양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MOU 체결 이후 유건영 회장은 브라질 국영기업인 NUCLEP(Nuclebrás Equipamentos Pesados S.A.), EMGEPRON(Empresa Gerencial de Projetos Navais) 및 ARCDYNAMICS 등의 브라질 기업의 관계자와 만나 회의를 가졌다.

코참 활동

Cluster Naval과 MOU 체결

법률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안내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법률세미나 개최 (8/27)



코참은 8월 27일(화) 오후 4시부터 상파울루 Itaim Bibi에 위치한 Lobo de Rizzo 법률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참과 Lobo de Rizzo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코참 회원사 및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대표와 실무자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브라질 부가가치세 개혁 내용과 기존 세금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시간 가장 포르투갈어 발표 및 한국어 통역 순으로 진행되었다. Lobo de Rizzo의 Maria Carolina Bachur, Andrey Biagini 변호사가 해당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제 변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하였고, 강사들은 각 사례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에 관해 설명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이 끝난 후 소감을 교환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코참 활동

Cluster Naval과 MOU 체결
법률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안내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안내 (9/12)

Palestra
Entendendo a cultura coreana: do dorama ao chão de fábrica

Inscrição

12 de setembro/2024
Receptivo: 18h30
Palestra: 19h às 21h

Local: Auditório Simespi

Palestrante:
Profa. Dra. Yun Jung Im

INGRESSO SOLIDÁRIO:
1KG DE ALIMENTO NÃO PERECÍVEL

Informações: cursos@simespi.com.br

Realização: **SIMESPI** **KOCHAM**

Apoio: **SICOOB COCRE** **Unimed** **USCCRED**

O Simespi reserva-se no direito de alterar a data do evento por qualquer motivo devidamente justificado.

코참은 9월 12일(목) 오후 7시부터 Piracicaba에 위치한 SIMESPI 강당(주소: Rua Almirante Barroso, 150, Alemães, Piracicaba)에서 SIMESPI와 공동으로 한국 문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SIMESPI는 Piracicaba에 위치한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제철 및 주조 산업 협회로, 다수의 한국 기업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브라질 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의 임직원들과 더 나은 소통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USP의 임윤정 교수가 “한국 문화의 이해 - 드라마부터 공장 현장까지”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을 한다. 참석 희망자는 좌측의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 나타나는 링크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교육원,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확대

총영사, 국적회복자 증서 수여

한국문화의 날, 하루동안 7만명

한인타운 보도블록 교체 착수

공관 및 교민 소식

상파울루한국교육원, 한국어 및 문화 강좌 대폭 확대 개설



상파울루한국교육원(원장 신일주)은 8월1일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직영 강좌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어 강좌 49개, 포어 강좌 2개, 캘리그래피 강좌 2개가 새롭게 개설되며, 한국어 강좌의 경우 총 1,181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 강좌의 인기는 매우 높아, 수강 신청 시작 2일 만에 8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대부분의 강좌가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4년 한국어 직영 강좌의 개설 수와 수강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68개에서 100개(정규과정 47개, 일반과정 53개), 1,798명에서 2,384명(정규과정 1,207명, 일반과정 1,177명)으로 증가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채진원 총영사, 국적회복자에게 증서 수여



채진원 주상파울루총영사가 8월 20일(화) 총영사관에서 국적회복자와 그 가족에게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 가능하며, 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성인은 증서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브라질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국적을 회복한 부모와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급증으로 심사기간이 1년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적회복 신청자들은 이를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출처: 좋은아침)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교육원,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확대

총영사, 국적회복자 증서 수여

한국문화의 날, 하루동안 7만명

한인타운 보도블록 교체 착수

공관 및 교민 소식

제17회 한국문화의 날 대성황, 하루동안 7만명 추산



브라질한인회(회장 김범진)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원장 김철홍)이 공동주관한 ‘제17회 한국문화의 날’에 7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브라질 전국 한류팬들이 몰려 열광했다.

올해 한국문화의 날은 당초 17~18일 양일간 개최 예정이었지만, 18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연방국가공무원 시험장소로 행사장 부근 FATEC 기술대학교가 이에 포함되면서 모든 이벤트가 취소됨에 따라 17일 하루만 열렸다.

푸드코트엔 한국 길거리 음식부터 다양한 한식코너가 마련되어 내내 북적였으며, 무대에선 한국문화를 포함해 볼리비아 전통 무용도 소개되어 문화를 통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도 남겼다. (출처: 한인투데이)

3년 노력 끝에 봉헤찌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 착수



상파울루 최대 한인 거주지인 봉헤찌로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3년여에 걸친 지역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다.

현재 공사는 Rua Prates-Coreia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낡고 거칠어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한인타운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2021년 당시 황인상 총영사를 중심으로 한인사회 대표들은 상파울루 시장과 만나 한인타운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보도블록 교체와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브라질 진출 한국 기업들의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출처: 좋은아침)